**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 14-21절>**

**14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5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6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17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20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21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자들이 놀라며 걱정합니다. 배에서 먹을 빵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게 생각난 것입니다. 사람은 여럿인데 지금 배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시다시피 누룩은 술이나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곰팡이를 넣으면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빵을 부풀어오르게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이 퍼지고 부푸는 성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다버리라” 권면할 때, 그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부정적인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경고의 의미를 담아 비유적으로 ‘누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누룩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지금 빵이 없다는 사실에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빵이 하나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빵을 미리 못 챙긴 데 대해 예수님이 뭔가 추궁하시는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빵이 부족한 상황을 통해, 바로 그런 결핍의 상황에서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 지금 내게 없는 것에 더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의 유혹’입니다. 누룩은 부풀리는 것입니다. 실체보다 더 크고 풍성해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론 얼마 먹지 않았는데도 왠지 많이 먹고 배부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누룩의 유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외식’ 혹은 ‘위선’을 의미합니다. ‘외식’이란,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만 보기 좋게 꾸며대는 일을 말합니다. 없으면서 있는 체 하는 것, 자기를 실제보다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것, 그러면서 괜찮은 척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제하거나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랑하듯이 했다고 합니다. 십일조 규정은 사람들 눈을 의식해 철저히 지키면서도 율법의 더 중요한 내용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합니다. 고상하고 경건한 체 하지만 실제 그 속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보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이 당신의 제자들 속에 침투하여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일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이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해줄 것 같은 외적인 요소들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또한 과하게 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의 땅에서 왕이 된 것은 로마권력에 줄을 대고 그 제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잘못을 지적하자 그를 옥에 가둡니다. 물론 처음에 그는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두려워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자기 권력에 해가 될까 염려되어 그를 죽이도록 허락합니다.

이처럼 헤롯은 현실의 자기자신에 대한 콤플렉스 속에서 자기를 좀 더 있어 보이게 해 줄 것 같은 권력과 애인, 물질을 얻는 데 과하게 집착하였고, 그 결과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꾸물대거나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당신의 제자들 속에서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또한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나의 내면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형식만 거창하게 남아 있고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것을 그냥 덮어둔 채 괜찮다 괜찮다 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풀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서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나의 환경과 현실이 너무 초라하고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세속적인 것들로 나를 좀 더 있어 보이게 치장하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내 눈에 잠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부초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서도 안 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고, 오직 그분께만 나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될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적고 초라한 음식을 기꺼이 받아 드신 후,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렇게 떡 다섯 개로 거기 있던 오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겸손히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예수님은 그 적고 초라한 음식을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은 그 적은 음식을 부풀리지도, 그 초라한 음식을 화려한 것으로 바꾸지도 않으시고, 그 있는 것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사십시다!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부족함 없이 오히려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내게 빵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은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은혜는 다른 것들로 자기를 부풀리려 하지 않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우리에게 다른 좋은 것 주시기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는 시대적 분위기 중 하나는 사람들의 지나친 자기-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명령하지만 자기-사랑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자기-사랑은 타락한 말세의 표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무한-부정도 문제이지만 무한-긍정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대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실제보다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외식과 위선, 나를 세속적인 것들로 치장하려는 집착과 탐욕은 지나친 자기-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러므로 자기자신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의 유혹을 조심하십시다!

나를 가식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부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부풀리려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외식과 탐욕의 누룩을 내다버리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